경주 흥륜사 철솥에 담긴 염원 만나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경주 불국사박물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
2023년 출토 철솥 첫 공개
고려 시대 불교공예 '한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23년 경주 흥륜사서 출토된 철솥과 불교의례구 일괄. 불국사박물관서 열리는 특별전에서 첫 공개된다.

경주 흥륜사에서 출토된 철솥과 공양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경주 불국사박물관(관장 종천 스님·불국사 주지)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 춘추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인철)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3년 경주 흥륜사(옛 영묘사지) 서편에서 발굴된 철솥과 솥 안에 담긴 여러 불교 의례구, 곡물들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발굴된 철솥과 불교 의례구 등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약 2년에 걸쳐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발굴 당시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기와, 토기 조각들을 비롯해 청동 공양구 등을 넣은 철솥이 매납된 채 확인됐고,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추정 '○묘사(○廟寺)'명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철솥 안에서는 향로, 향완, 촛대, 접시, 금강령, 금강저 등 정교하게 제작된 불교 의례 도구가 담겨 있어 주목받았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일괄 출토된 것은 고려 시대 불교의례와 신앙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며 "또한 석회와 보리·벼·조·기장·밀·콩 등 아홉 종의 곡물도 함께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유물들이 당시 단순한 매장이 아닌 특별한 매납 행위를 통해 땅에 묻혔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2023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묘사(○廟寺)' 명문 기와와 향로·향완·촛대·금강저 등 대표적인 의례구 등 50건 58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전시는 경주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려 시대 불교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신라 이후 이어져 온 경주의 사찰과 불교 공예의 진면모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전이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 문화유산과 고려 불교공예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시는 불국사박물관에서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부처님 설법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법을 청하니 설하시다'
내년 2월 1일까지 진행돼


특별전에 전시되는 진주 청곡사 제석천의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행하신 설법의 의미를 문화유산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해인사 개산 1223주년을 맞아 특별전 '법을 청하니, 설하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범천·제석천의 간절한 권청(勸請)으로 시작된 부처님의 설법(說法)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합천 해인사 금동여래입상(경남도 유형문화유산)', '팔상도 병풍' 등 해인사의 성보들을 비롯해 해인사 원당암·해인사 홍련암·진주 청곡사·함양 벽송사·합천 연호사 등 해인사의 산내 암자와 말사에서 전해지는 귀중한 성보들이 함께 공개된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부 '권청'에서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한 범천과 제석천의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화인 '범천권청'을 다룬 불교조각·회화·전적을 소개한다. 제2부 '설법(說法)'에서는 권청으로 시작된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다양한 불교회화 · 전적 · 경판들을 선보인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은 "불교사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장면은 싯다르타가 6년 고행 끝에 '도를 깨달음[成道]'과 '깨닫고 난 뒤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할 수 있다"면서 "권청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 대중의 간절한 청이었으며, 부처님은 이에 응답해 자비를 베푸셨다. 이번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도 그 권청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면, 부처님은 자비로 보답하시어 복된 나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2025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과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제11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해인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⑬ 무정설법(無情說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책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고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1981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며 하신 법어이다. 당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구절이 신선한 울림으로 널리 회자되었다. 하지만 '보이는 만물은 관세음보살이고, 들리는 소리는 미묘한 설법'이라는 구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무정설법은 유정설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리는 인간이나 지식인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역시 늘 설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의미는 경전과 선사들의 어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無情說法

〈화엄경〉에서는 "유정과 무정이 함께 부처의 지혜를 원만히 한다(情與無情 同圓種)"라고 하였고, 동산양개 선사는 "솔바람 소리는 법의 뜻을 풀어 주고, 흐르는 물은 진여본심을 드러낸다(松風吹解義 水流達本心)"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 유신 선사는 "산은 스스로 푸르고 물은 스스로 흐르니 모두가 무정설법이로다(山自靑, 水自流, 盡示無情說法)"라며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작용 속에서 진리의 의미를 읽어 내고자 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으니, 하나는 문자로 된 책이고 또 하나는 천지 만물로 된 책"이라며 '자연책'을 언급하였다. 청장관 이덕무는 〈독서기〉에서 "책은 종이에만 있지 않고 산천에도 있고, 인물과 세상사에도 있다"며 '사람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정설법의 극치는 〈아미타경〉에서 잘 드러난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새들이 밤낮 여섯 때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서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보리분(七菩提分), 팔성도분(八聖道分)과 같은 법문이 흘러나온다.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보고 듣는 대상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사견과 편견을 버리고 욕탐과 집착을 내려놓은 채,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듣고 사유하라. '종이책'과 '자연책', 그리고 '사람책'을 조화롭게 읽으면 지식에 갇히고 관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무정설법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세계 불교석굴 의미·기능 조명한다

(재)리앤원, 국제학술강연회
10월 18일 국중박 소강당서

돈황 막고굴 등 세계 불교석굴의 의미와 기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재단법인 리앤원(이사장 원재연)은 10월 1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불교석굴은 어떻게 쓰이고 경험되었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석굴 중 돈황 막고굴과 쿠차 석굴을 불교도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모나카 진 독일 라이프치대 교수는 '쿠차 석굴의 승원과 그 기능'을, 우훙 미국 시키고대 교수는 '공간으로 보는 돈황: 막고굴의 공간 경험'을 각각 강연한다.

원재연 리앤원 이사장은 "리앤원은 매년 '불교와 불교미술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대주제 아래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돈황 막고굴과 쿠차 석굴에 대한 불교도들의 경험과 활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훙·모니카 진 교수의 최신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